

Lanxess, 최첨단 플라스틱 기술 공개

독일 특수화학기업 Lanxess는 4월19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이 뉴인터내셔널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는 <China-plas 2010>에 참가해 최첨단 플라스틱 기술을 선보였다.

아시아 최대의 플라스틱 고무 박람회에서 Lanxess는 중국시장의 자동차 구매력 증가와 도시인구 증대에 따른 수요에 대응코자 플라스틱 및 무기안료 사업부와 자회사인 라인케미 사업부를 포함 3개 사업부가 전시에 참여했다.

플라스틱 사업부는 자동차의 중량은 줄이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증대시키는 반면 탄소 배출량은 감소시키는 플라스틱-금속 하이브리드 및 금속 대체 기술력을 선보였다.

무기안료 사업부는 Bayferrox를 비롯해 Colorthem, Chrome Oxide 등 플라스틱 안료를 공개했다.

내열성, 내후성 및 내광성이 뛰어난 친환경 안료로 건설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콘크리트 및 지붕 타일 제조용으로 공급하고 있다.

라인케미 사업부는 폴리머용 가수분해안정제 <Stabaxol®> 를 전시했다.

일반 플라스틱의 수명을 3배로 늘림으로써 PPS(Polyphenylene Sulfide)나 PEN(Polyethylene Naphthalate) 등 값비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
Lanxess 그룹 하이트만 회장은 “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10%대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6월에는 프리미엄 고무 제품도 선보일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Lanxess 중국법인은 5곳의 생산설비와 1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, 2009년 5억84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.

<화학저널 2010/4/26>